

현장과 시각

‘국민성공시대’ 만들려면



정후식

사회1부 부장

‘이명박 정부’가 오늘 출범한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오후 광주·전남에서도 200여 명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단, 특별초청 주민들이 상경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號)’를 이끌어갈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해주기 위해서다. 특별초청 대상은 환경미화원에서부터 택시 운전자, 아파라경비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족, 새터민, 사회단체 대표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취임식에 참여할 이들의 표정은 잔칫집 하객(賓客)처럼 밝지는 않았다.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참석 자체가 영광스런 일이지만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 TV 생중계로 지켜볼 주민들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17대 대선이 끝난 이후 지난 두 달여 동안 호남은 ‘정치적 섬’이 됐음을 처절하게 실감해야 했다.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 애써 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새 정부의 인사 및 정책 발표는 지역민들을 고립감속에 밀어 넣기 일쑤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수석, 내각 인선에서 광주·전남은 철저히 배제됐다. 반면 영남 인맥은 지나칠 만큼 도드라졌다. ‘누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었다 한다. 그런 탓인지 지역별 균형은 무시됐다. 새 정부의 단골메뉴인 ‘실용’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던 공직자들도 조만간 이뤄질 후속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은 눈치다.

호남 인맥 붕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정부와 소통을 단절시켜 지역 현안 사업 차질은 물론 미래마저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그 조짐은 벌써부터 움트고 있다.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존폐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논란이 대표적이다. F1특별법과 전남 서남권 개발의 근거가 될 낙후지역특별법, 광주과기원법 등의 17대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새만큼 개발에 치우쳐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되려 호남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엔 광주·전남이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을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슬로건은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다. 이는 특정 지역, 특정 계층만의 성공을 뜻하는 구호는 아닐 것이다. 이종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 특강에서 “국가 경영은 불편하더라도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인재를 고르게 중용하는 탕평책이 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진정한 ‘국민성공시대’를 일구려면 탕평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who@kwangju.co.kr

김홍업·박지원 공천장 받을까 현역의원 ‘물같이 폭’ 얼마나?

통합민주 광주·전남 공천 관전포인트

통합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 신청이 마감됐다. 통합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은 ‘공천=당선’으로 인식되면서 평균 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을 포함한 예비후보들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공천 경쟁의 관전 포인트를 조망해본다.

◇전락공천 지역은=민주당은 지난 22일 18대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 30%와 비례대표 30%를 박제승 공천심사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과연 몇 곳이 전락공천 지역으로 선정될 지가 관심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최소한 광주 1~2곳, 전남 1~2곳 등 3곳의 지역구에서 전락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치열한 공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락공천은 상당한 잡음과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홍업·박지원 공천=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

원(무안·신안)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박 전 실장은 대북불법송금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어 공천심사 방향 비리·부정인사 배제 기준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공천 접수 자체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이 크다.

여기에 사실상 비례대표를 요구하고 있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현역의원 교체 폭은=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 교체 비율도 관심사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현역의원의 40% 이상이 공천장을 받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체 현역의원의 절반이 넘는 5명 정도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남 지역에서도 전체의 30~40% 수준인 4~5명 정도에 대한 공천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구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공천 여부도 관심사다. 당장,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2명 등 총 4명 정도가 공천을 받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박제승 공천심사위원장이 24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공심위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적쇄신·기득권, 계파 이해 배제” 통합민주 공천심사 착수

통합민주당 ‘박제승 사단’이 절대적 공천 권한을 거머쥐면서 ‘공천 물갈이’가 현실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30%에 해당하는 전락공천과 비례대표 상위 30%에 대한 전락공천을 모두 박제승 공천심사위원장과 ‘합의’해 결정하기로 한데다, 이마저도 공천심사위원들의 의결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 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24일 첫 회의를 갖고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한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심사에 관한 세부 ‘룰’ 마련 등 공천 권한도 갖게 되면서 세부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을 위한 심사 방향과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심사 방향은 ▲인적쇄신 실현 ▲현역 의원의 기득권 및 계파 이해관계 배제 ▲당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적적 혼선을 초래한 인사에 대한 책임 규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당 규율을 해친 인사에 대한 문책 ▲비리, 부정 등 구시대적 정치 행

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 제외 ▲현역 의원은 별도 평가기준을 통해 교체 여부 판단 등 지난날 당 중앙위가 의결한 인적쇄신 방안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또 공천 심사를 위한 세부 ‘룰’을 마련하는 등의 권한도 공심위에 위임했다. 박 위원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눈으로 볼겠다”며 엄정한 시각의 공천 심사를 연일 강조해온 것을 감안하면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공심위의 공천심사 과정을 통해 강도높은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

盧대통령 청와대 마지막 밤

임기 5년 마무리...오늘 취임식 참석후 고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다시 단란했던 격동의 임기 5년을 마무리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위한 청와대 관저를 새로 꾸미는 작업을 위해 지난 22일 청와대를 나와 진해군 휴양지에서 이들을 머문 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귀경, 청와대 관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은 24일 자정이다. 법적으로 25일 0시부터는 권력이 이양되고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 시점부터 청와대 관저의 새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되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아침 5년간 머물며 정들었던 관저를 떠나 비서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24일에 청와대를 떠났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새 대통령 취임식날인 25일 오전 청와대를 떠났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이자 일요일인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가 열렸던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들을 초청, 고별 간담회를 가졌다. 30여분간 소회를 피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 230여 명을 초청해 이임환송 만찬을 했다.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행사가 될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공식적인 고별사를 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3일 밤 방영된 MBC 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5년간의 대통령 생활을 회고했다. ‘성공하는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야’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개인의 개성과 대통령직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5년간 불편할 뿐”이라며 “누구에게나 100% 다 맞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게 맞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한 대통령”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수직적 질서에 의해 만들어놓은 많은 제도들이 불편하고 힘들었다”며 “보기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 직이 너무 수직적인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수평적 인간이어서 오전 청와대를 떠났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이자 일요일인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가 열렸던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들을 초청, 고별 간담회를 가졌다. 30여분간 소회를 피력했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 편으로 퇴임 이후 정착할 고향인 경남 김해 봉곡마을로 내려가 시민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다. /연합뉴스

한나라 공천 단수후보 50명 확정

광주 3명·전남 3명...친이명박계 38명 압도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가 지난 12일부터 12일간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면접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50명의 단수 후보자가 확정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이날까지 공천신청자 1천177명 중에서 심사 보류자를 제외하고 모두 546명(비공개 2명 포함)이 1차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단수후보는 50명(단독신청자 3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단수후보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명, 대구 4명, 광주·전북·전남 3명, 인천·충남·강원·경북·울산 각 2명, 대전·충북·부산·경남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단수후보 가운데 친(親)이명박계가 38명을 차지, 9명에 그친 친(親)박근혜계를 압도했다. 중립 성향 단수후보는 3명

이었다.

친이 성향 단수후보의 경우 이명박 당선인의 친형인 이상득(경북 포항남·울릉) 의원과 이재오(서울 은평갑) 이방호(경남 사천)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공성진(서울 강남을) 진수희(서울 성동갑)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등 핵심 측근들이 많았다.

친박 성향 단수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대구 달성) 본인을 비롯해 유정복(경기 김포) 김학원(충남 부여·청양) 진영(서울 용산) 이계진(강원 원주) 정갑윤(울산 중구)의원, 강창희(대전 중구) 전 의원 및 호남 원외 인사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수후보는 대부분 공천이 확실시되지만 호남과 충청 지역의 경우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 지적을 받고 있어 향후 당이 전략 공천하는 예비후보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3원 3일 광주고시학원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2008년 (제67기)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모집